

# 간호대학생의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

## Sense of Coherence and Academic Stress in Nursing Students

이미현, 박미숙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Mihyon Lee(mhlee@ut.ac.kr), Misook Park(mspark@ut.ac.kr)

###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정도 및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2014년 6월, C지역 일부 간호대학의 2학년이상의 간호대학생 24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한 후 SPSS 18.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통합성은 127.21점, 학업스트레스는 48.90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성별, 학년, 전공만족도, 교우관계, 가족관계, 대학생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 간에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해가능성, 전공만족도, 교우관계 이었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1.3%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간호교수법의 개선과 통합성 강화 프로그램 및 상담지도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으로 학업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나가야겠다.

■ 중심어 : | 간호대학생 | 통합성 | 학업스트레스 |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sense of coherence and academic stress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48 nursing students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SPSS WIN18.0.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ense of coherence and academic stress. Major satisfaction, friends relationship and comprehensibility as a subcategory of sense of coherence accounted for 31.3% of the variance in academic stress. In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we should search strategies for improvement of teaching method to heighten the major satisfaction, enforcement of sense of coherence, and development of counseling program to reduce academic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 keyword : | Nursing Student | Sense of Coherence | Academic Stress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접어든 20세 전

후의 성인초기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여러 역할들을 경험해보고,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심리사회적 유예기간이다[1].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고교졸업까지 수동적 내지 의존적인 공부를 해

\* 이 논문은 2014년도 한국교통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접수일자 : 2014년 10월 13일

수정일자 : 2014년 11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2월 10일

교신저자 : 박미숙, e-mail : mspark@ut.ac.kr

왔고 대학에서는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노출되면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대학생활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방식의 요구와 함께 대학생활의 새로운 문화와 인간관계 등은 그에 대한 적응의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2]. 무엇보다도 대학에 입학하면 학점 이수, 시간관리, 다양한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고민 등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대학생들에게는 잠재적 스트레스 원이 될 수 있다[3]. 이들 가운데 대학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요인은 학업문제이고, 그 다음으로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 등이라고 한다[2][4]. 대학생들은 그들의 주요활동을 학업으로 여기고 있고 학업은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일”이다. 일로서의 학업이 대학생들의 중요한 의미의 원천이 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대단한 것이다[5].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는 학생들에게 학업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또는 긴장, 근심, 우울, 초조함 같은 심리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스트레스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학습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6].

특히 간호대학생은 다른 전공의 대학생과는 달리, 간호학생으로서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임으로 인해 긴장감이 발생하고 임상실습과 병행하는 수업에 따른 부담과 더불어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한 일련의 과정 등의 다양한 과업을 성취해야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이에 따른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7][8]. 외국의 경우에도 시험, 과제, 학제, 학업과다, 학업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 개인의 자유시간부족 등으로 우리나라 간호대학생들과 유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이러한 스트레스는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각하고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스트레스원에 대해 적절한 개인의 내성자원을 활용하고 조절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건강생성이론의 중심개념인 통합성을 제시하고 있고[10],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하여 건강증진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생성이론은 개인이

긴장유발요인(스트레스원)에 접하면 신체적, 생화학적, 물질적, 인지적, 정서적, 윤리적, 인간관계적, 사회문화적 요소를 포괄하고 있는 전반적 내성자원(generalized resistance resources: GRRs)을 동원해 긴장유발요인에 의해 생기는 긴장이나 시련을 극복하도록 하고 이를 극복하게 되면 더욱더 통합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11]. 통합성은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내외적 환경으로부터 비롯되는 자극을 구조화하고 예측하며 설명할 수 있고 일관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인지적요소인 이해가능성(comprehensibility), 이들 자극들에 의해 제기되는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행동적요소인 처리가능성(manageability), 이러한 요구들이 도전, 투자, 개입할 가치가 있다고 지각하는 동기부여적 요소인 의미부여성(meaningfulness)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에 대하여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자신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전반적인 인식능력을 통합성이라고 하였다[10].

통합성이 강한 개인은 자극에 의해 긴장이 유발되지 않고, 유발되더라도 이를 위협하거나 위협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보다 자발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해결하며 이에 흥미를 느낀다고 설명하고 있다[11][12]. 따라서 통합성이 강한 간호학생의 경우,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가 유발되어도 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적절한 자원을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도전적인 기회로 인식하고 관심을 갖게 되어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의 통합성에 대한 연구동향을 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합성과 임상실습스트레스[13], 사회문화적응스트레스[14], 대학생의 건강관련행위[15],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16], 대처자원[17],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순응도[18] 등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어, 통합성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들을 감소시키며 삶의 질이나 건강관련행위 등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통합성과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간호대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학업스트레스와 통합성과의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3년제 학제에 있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입학 첫 해 신입생부터 전공과목의 생소한 수업으로 인해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19], 4년제 학제의 경우 대부분 기초전공과목외의 간호전공과목은 2학년부터 수업이 시작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간호전공과목을 이수하기 시작하는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통합성을 측정하고, 학업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통합성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의 정도 및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통합성 및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C지역에 소재한 일부 대학의 간호대학생들 가운데 전공과목을 이수하기 시작한 2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대상자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 필요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8개를 기준으로 하여 160명이 산출되었고, 본 연구의 대상자 수 248명은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 3. 연구도구

### 3.1 통합성

통합성은 Antronovsky[10]가 통합성(sence of coherence: SOC)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서임선[18]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9문항으로 이해가능성 11문항, 처리가능성 10문항, 의미부여성 8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이며 점수범위는 29~203점이다. 29문항 중 12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통합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임선[18]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 3.2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박병기 등[6]이 개발한 학업스트레스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업스트레스영역은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생활분야로 성적, 수업, 공부의 세 개 하위영역으로, 학업스트레스 원천은 학업스트레스를 주는 원인, 즉 인적 자원으로 부모, 교사, 자기로 구분하였다. 학업스트레스영역의 성적은 학업(수업, 공부)의 결과로 인해 받는 학업스트레스를 강조한 영역이며 수업은 학교에서 정해진 과정과 시간에 배우면서 받는 학업스트레스를 강조한 영역이다. 공부는 스스로 학문을 익히면서 받는 학업스트레스를 강조한 영역이다. 학업스트레스원천은 대학생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학업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주체가 부모, 교사보다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학업스트레스를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진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만을 학업스트레스원천으로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성적 5문항, 수업 5문항, 공부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15~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병기 등[6]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성적 Cronbach's  $\alpha = .867$ , 수업 Cronbach's  $\alpha = .736$ ,

공부 Cronbach's  $\alpha = .832$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학업스트레스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7$ 이었고, 하위 척도는 성적 Cronbach's  $\alpha = .807$ , 수업 Cronbach's  $\alpha = .789$ , 공부 Cronbach's  $\alpha = .719$ 이었다.

#### 4. 자료수집

C지역 일부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 이상의 간호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6월 9일부터 2014년 6월 20일 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사전에 연구목적, 연구 내용 및 연구에 위험이 따르지 않으며, 설문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는 이용되지 않고, 익명과 비밀이 보장되며, 원할 시에는 언제든지 연구참여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총 281부를 배부하여 259부(92%)가 회수되었고 이 중 응답내용이 미흡한 설문 11부를 제외한 24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통합성, 학업스트레스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를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나이가 21세 이상이 157명(63.3%), 21세미만이 91명(36.7%)이었다. 학년은 4학년이 114명(46.0%), 2학년 88명(35.5%), 3학년 46명(18.5%)이었다. 성별은 대부분 여학생 215명(86.7%)이었고 남학생 33명(13.3%)이었다. 직전학기 평점은 평균점수 3.59이상 이 142명(57.3%)이었고 3.59미만은 106명(42.7%)이었

다. 종교는 무교가 123명(49.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천주교 60명(24.2%), 개신교 49명(19.8%), 불교 16명(6.5%) 순이었다. 거주형태는 자취 또는 하숙이 106명(42.7%), 기숙사 89명(35.9%), 부모님과 거주 49명(19.8%), 친척 4명(1.6%) 순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16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 75명(30.2%), 매우 만족한다 38명(15.3%), 만족하지 않는다 19명(7.7%) 순이었다. 교우관계는 만족한다가 132명(53.2%)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56명(22.6%), 매우 만족한다 48명(19.4%), 만족하지 않는다 12명(4.8%) 순이었다. 가족관계는 매우 만족한다가 120명(4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만족한다 83명(33.5%), 보통이다 34명(13.7%), 만족하지 않는다 11명(4.4%) 순이었으며, 대학생생활은 보통이다가 99명(39.9%), 만족한다 87명(35.1%), 만족하지 않는다 45명(18.1%), 매우 만족한다 17명(6.9%) 순이었다[표 1].

#### 2.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통합성의 평균은 127.21점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이해가능성 43.46점, 처리가능성 46.52점, 의미부여성 37.23점이었다.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평균은 48.90점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성적 19.0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부 17.40점, 수업12.46점 순이었다[표 2].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합성의 점수는 성별( $t=2.73$ ,  $p=.007$ ), 학년( $F=3.14$ ,  $p=.045$ ), 전공만족도( $F=20.95$ ,  $p<.001$ ), 교우관계( $F=28.08$ ,  $p<.001$ ), 가족관계( $F=11.39$ ,  $p<.001$ ), 대학생생활( $F=23.08$ ,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통합성이 높았다. 통합성의 사후검정결과 학년에서는 3학년군이 4학년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군이 만족하지 않는다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교우관계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군이 만족하지 않는다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관계는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군이 만족하지 않는다군보다

더 높았으며, 대학생활은 매우 만족한다군이 만족하지 않는다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점수는 성별 ( $t=-2.89, p=.004$ ), 전공만족도( $F=16.52, p<.001$ ), 교우관계( $F=8.51, p<.001$ ), 가족관계( $F=7.27, p<.001$ ), 대학생활( $F=8.36,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학업스트레스를 더 받았다. 학업스트레스의 사후검정결과 전공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는다군이 매우 만족한다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교우관계는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군이 매우 만족한다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관계가 만족하지 않는다군이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군보다 더 높았으며, 대학생활도 만족하지 않는다군이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표 3].

4.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점수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r=-.62, p<.001$ ). 학업스트레스와 통합성의 하위요인은 이해가능성( $r=-.57, p<.001$ ), 처리가능성( $r=-.58, p<.001$ ), 의미부여성( $r=-.49, p<.001$ )으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표 4].

5.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전공만족도, 교우관계, 가족관계, 대학생활, 통합성과 상관관계분석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통합성의 하위요인 이해가능성, 처리가능성, 의미부여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모두 선택방법(all selection method)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중에서 명목변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분산팽창요인이 2.190 ~ 3.895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해가능성( $\beta=-.369, p<.001$ ), 전공만족도( $\beta=-.319, p=.019$ ), 교우관계( $\beta=.327, p=.018$ )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가 학업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31.3%이었다[표 5].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48)

변수	내용	M±SD or n(%)
나이	< 21	91(36.7)
	≥ 21	157(63.3)
학년	2학년	88(35.5)
	3학년	46(18.5)
	4학년	114(46.0)
성별	남	33(13.3)
	여	215(86.7)
직전학기평점		3.59 ± .487
	1.7~3.58	106(42.7)
	3.59~4.47	142(57.3)
종교	개신교	49(19.8)
	천주교	60(24.2)
	불교	16(6.5)
거주형태	부모님과 거주	123(49.6)
	기숙사	49(19.8)
	자취 또는 하숙	89(35.9)
	친척	106(42.7)
전공만족도	만족하지 않는다	4(1.6)
	보통이다	19(7.7)
	만족한다	75(30.2)
	매우 만족한다	116(46.8)
교우관계	만족하지 않는다	38(15.3)
	보통이다	12(4.8)
	만족한다	56(22.6)
	매우 만족한다	132(53.2)
가족관계	만족하지 않는다	48(19.4)
	보통이다	11(4.4)
	만족한다	34(13.7)
	매우 만족한다	83(33.5)
대학생활	만족하지 않는다	120(48.4)
	보통이다	45(18.1)
	만족한다	99(39.9)
	매우 만족한다	87(35.1)

표 2.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 정도

(n=248)

변수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통합성	127.21±20.113	51	184
이해가능성	43.46± 7.981	18	67
처리가능성	46.52± 7.426	18	67
의미부여성	37.23± 7.503	10	53
학업스트레스	48.90± 8.988	18	71
성적	19.04± 3.832	6	25
수업	12.46± 4.143	5	25
공부	17.40± 3.555	5	25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의 차이

(n=248)

변수	통합성			학업스트레스		
	M±SD	t or F	ρ	M±SD	t or F	ρ
나이						
< 21	128.14±17.87	.55	.581	47.68± 8.48	-1.64	.103
≥ 21	126.68±21.34			49.61± 9.22		
학년						
2학년	126.14±18.42 <sup>a</sup>	3.14	.045	48.28± 9.29	.96	.383
3학년	133.83±15.88 <sup>b</sup>		b)c	47.98± 7.70		
4학년	125.38±22.37 <sup>c</sup>			49.75± 9.23		
성별						
남	136.00±23.82	2.73	.007	44.76±10.86	-2.89	.004
여	125.87±19.19			49.54± 8.52		
직전학기평점						
1.7~3.58	126.40±22.75	-53	.594	48.69± 9.66	-.32	.746
3.59~4.47	127.82±17.95			49.06± 8.49		
종교						
개신교	128.71±15.31	.57	.634	49.90± 8.84	.54	.656
천주교	128.12±25.60			47.80±10.83		
불교	131.13±18.72			48.38± 8.45		
무교	125.67±19.01			49.11± 8.14		
거주형태						
부모님	126.10±19.71	1.21	.308	49.69± 8.72	.59	.623
기숙사	125.13±21.96			49.49± 9.52		
자취 또는 하숙	129.80±18.59			48.03± 8.79		
친척 또는 기타	118.50±18.98			49.25± 4.79		
전공만족도						
만족하지 않는다	103.05±23.34 <sup>a</sup>	20.95	<.001	57.53± 8.80 <sup>a</sup>	16.52	<.001
보통이다	121.35±15.89 <sup>b</sup>			51.19± 7.15 <sup>b</sup>		
만족한다	131.24±18.45 <sup>c</sup>		a(c,d)	48.06± 8.14 <sup>c</sup>		a)d
매우만족한다	138.58±17.87 <sup>d</sup>			42.66±10.13 <sup>d</sup>		
교우관계						
만족하지 않는다	96.75±28.44 <sup>a</sup>	28.08	<.001	51.83± 9.74 <sup>a</sup>	8.51	<.001
보통이다	115.73±16.31 <sup>b</sup>			53.41± 8.97 <sup>b</sup>		
만족한다	131.09±17.10 <sup>c</sup>		a(c,d)	47.92± 7.91 <sup>c</sup>		a,b)d
매우만족한다	137.56±15.77 <sup>d</sup>			45.60± 9.68 <sup>d</sup>		
가족관계						
만족하지 않는다	102.09±26.98 <sup>a</sup>	11.39	<.001	58.09± 9.08 <sup>a</sup>	7.27	<.001
보통이다	117.85±19.19 <sup>b</sup>			52.29± 8.51 <sup>b</sup>		
만족한다	128.06±15.56 <sup>c</sup>		a(b,c,d)	48.63± 7.86 <sup>c</sup>		a)c,d
매우만족한다	131.58±20.16 <sup>d</sup>			47.29± 9.19 <sup>d</sup>		
대학생활						
만족하지 않는다	110.27±24.53 <sup>a</sup>	23.08	<.001	53.24± 8.84 <sup>a</sup>	8.36	<.001
보통이다	125.27±14.07 <sup>b</sup>			50.00± 7.92 <sup>b</sup>		
만족한다	136.20±16.97 <sup>c</sup>		a(d)	46.07± 8.60 <sup>c</sup>		a)c,d
매우만족한다	137.41±21.19 <sup>d</sup>			45.53±11.59 <sup>d</sup>		

표 4.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n=248)

통합성	통합성			
	통합성	이해가능성	처리가능성	의미부여성
학업스트레스	-.62(p<.001)	-.57(p<.001)	-.58(p<.001)	-.49(p<.001)

표 5.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48)

변수	B	SE	β	t	ρ	VIF
(상수)	75.690	4.624		16.37	<.001	
이해가능성	-.395	.110	-.369	-3.59	<.001	2.190
전공만족도*	-5.293	2.227	-.319	-2.38	.019	3.741
교우관계*	5.849	2.450	.327	2.39	.018	3.895
adj R <sup>2</sup> = .313 F = 7.505 (p <.001)						

\* 더미변수

####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통합성 평균은 127.21점으로 선행연구의 점수보다는 다소 낮거나 유사하였다. 이는 호주의 중국간호학생의 사회문화적응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14]와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은 간호대학생[13]과 유사하였으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6][17]보다는 낮았다. 통합성이 강한 간호학생의 경우,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가 유발되어도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흥미를 갖게 되어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11][12]을 감안해보면, 본 연구대상자들의 통합성수준은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대상자들의 학업스트레스는 48.90점으로, 이는 간호대학 신입생 및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19][20]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임상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더 높다[21]고 하였으며, 일반대학생들의 경우에도 공부나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22]하므로, 이처럼 과중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지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성별, 학년, 전공만족도, 교우관계, 가족관계, 대학생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통합성이 낮고 학업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는 여자대학생들이 남자대학생들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많이 호소한다는[23]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본 연구대상자의 대부분(86.7%)이 여학생으로 성별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보며, 향후 적절한 표본수에 의한 연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3학년 학생이 4학년학생보다 통합성이 높았다. 이는 졸업반인 4학년학생은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고 또한 취업과 진로에 대해 긴장과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3학년학생은 4학년학생보다는 스

트레스원에 대해 덜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보다 더 그러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만족도에 따라서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통합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결과[13]와 일치하였고, 학업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21][24]와 일치하였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낮으며[13] 간호학 이론 및 실습교과목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 성과 성취도와 중요도를 높게 인식한다는 결과[25]와 맥락을 같이하므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때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통합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즉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중재방안으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수법의 개선으로 전공학문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여 학업성취도를 고취시키고 이로 인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감소되어야 할 것이다.

교우관계에 따라서는 교우관계에 만족할수록 통합성은 높고 학업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팀별과제나 팀별 학습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의 학습과정에서 팀원 간의 협동심이나 배려심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26]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즉, 교우관계의 만족감정도는 학업 부담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동료, 선배 등과의 관계를 개별 지지자원으로 강화하고 활용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고 통합성도 높일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보겠다.

가족관계에 따라서는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통합성이 높았고 학업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스트레스는 줄어든다는 연구결과[27]와 일치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위기사건이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27] 반면, 가족관계안에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동일한 스트레스상황에서도 자기를 조절하여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다[28]는 점에서, 가족관계로 인한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조절요인으로 통합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겠다.

대학생활에 따라서는 대학생활에 만족할수록 통합성이 높고, 학업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다른 전공학생들에 비해 전공에 대한 학업적 스트레스와 임상실습에 대한 부담감으로 대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적응정도를 낮추고 [29], 학교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생활(수업, 시험)에 적응하는 수준인 학업적응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낮다[26]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전반적으로 간호대학생의 과중한 학업량이 대학생활의 만족정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결과를 보면, 통합성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성이 높을수록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적게 나타나고,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낮다고 한 결과[13][16]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성은 간호학생이 학업과 관련된 다양한 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부담감[7][8]을 긍정적으로 완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교과과정 운영에서의 각 교과목의 방대한 과제출력량이나 여유 없는 수업시간 일정에 의한 과도한 부담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통합성의 하위요인인 인지적요소인 이해가능성, 행동적요소인 처리가능성, 동기부여적 요소인 의미부여성 등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성이 주어진 환경에 처한 문제들을 일관성 있고 납득할 만한 것으로 여기며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낮고 또한 의미를 두고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능력으로서,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핵심요인으로 통합성이 제시된 결과[10]와 일치하고 있다.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적인 특성에서 전공만족도, 교우관계와 통합성 하위요인의 이해가능성이었고 이들 변수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31.3%이었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고 교우관계에 만족할수록 스트레스상황에서도 자기를 조절하여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통합성의 인지적요소인 이해가능성은 내외적 환경으로부터 비롯되는 자극을 이해가능하며 분명

하고 일관된 정보로 인지하는 특성으로, 이러한 인지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학업상당시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적절한 내성자원으로 전공만족도, 교우관계, 가족관계, 대학생활만족도 등을 잘 관리하고 적응해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통합력을 개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이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간호학적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지역 소재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정도 및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중재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통합성은 127.21점, 학업스트레스는 48.90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은 성적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간호학생들이 수업, 공부 등의 학업의 결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합성과 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학년, 성별, 전공만족도, 교우관계, 가족관계, 대학생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 간에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 교우관계와 통합성의 하위요인의 이해가능성이었다.

결론적으로 간호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간호교수법의 개선과 통합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으로 학업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 및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추후연구로 통합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스



트레스상황을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지도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york, Norton, 1968.
- [2] 권순일, “대학생의 스트레스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S대 경영계열 학생을 중심으로”, 경제경영연구, 제10권, 제1호, pp.1-29, 2009.
- [3] D. L. Coffman and T. D. Gilligan, “Social support, stress and self-efficacy: Effects on student’s satisfaction,” J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Vol.4, No.1, pp.53-66, 2002.
- [4] 유계숙, 신동우, “대학생의 학업·취업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소진 및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제14권, 제6호, pp.3849-3869, 2013.
- [5] 장형식,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원천과 대처전략”, 부산대학교 학교생활연구소, 제32권, pp.101-105, 2000.
- [6] 박병기, 박선미, “학업스트레스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제26권, 제2호, pp.563-585, 2012.
- [7] 정명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실습수행도 및 실습만족도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제8권, 제1호, pp.60-68, 2009.
- [8] 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1권, 제4호, pp.621-631, 2002.
- [9] F. Timmins and M. Kaliszer, “Aspects of nurse education programmes that frequently cause stress to nursing students: Fact-finding sample survey,” Nurses Education Today, Vol.22, pp.203-211, 2002.
- [10] A. Antonovsky, *Unraveling the mystery of health: how people manage stress and stay well*, Jossey-Bass, San Francisco, 1987.
- [11] 공은숙, “건강요인지향적 모델과 간호학”, 간호학탐구, 제4권, 제1호, pp.110-128, 1995.
- [12] B. Lindström and M. Eriksson, “Contextualizing salutogenesis and Antonovsky in public health development,”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Vol.21, No.3, pp.238-244, 2006.
- [13] 이은주, 진원희, “간호학생의 통합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2호, pp.163-171, 2013.
- [14] F. X. He, V. Lopez, and M. C. Leigh, “Perceived acculturative stress and sense of coherence in Chinese nursing students in Australia,” Nurse Education Today, Vol.32, No.4, pp.345-350, 2012.
- [15] M. Binkowska-Bury and P. Januszewicz, “Sense of coherence and health-related behaviour among university students: A questionnaire survey,” Central European J of Public Health, Vol.18, No.3, pp.145-150, 2010.
- [16] 김경숙, 최스미, “간호사의 통합성이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제17권, 제4호, pp.493-507, 2011.
- [17] 박재순, 서임선, 오정아, 최의순, “병원근무 간호사의 통합성과 대처자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7권, 제3호, pp.348-358, 2001.
- [18] 서임선, 당뇨병환자의 통합성과 순응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19] 최효진, 이은주,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기본간호학회지, 제19권, 제2호, pp.261-268, 2012.
- [20] 양윤경, 한금선, 배문혜, 양승희,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학업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연구, 제22권, 제1호, pp.23-33, 2014.
- [21] S. E. Thyer and P. Bazeley, “Stressors to student nurses beginning tertiary education: An

Australian study,” Nurses Education Today, Vol.13, pp.336-342, 1993.

- [22] 오미향, 천성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요인 및 증상분석과 그 감소를 위한 명상훈련의 효과”, 인간이해, 제15권, pp.63-96, 1994.
- [23] 이은희,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방식의 조절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제9권, 제1호, pp.25-52, 2004.
- [24] 박현주, 장인순, “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과 임상실습 만족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pp.14-23, 2010.
- [25] 배수현, 박정숙, “간호대학생의 간호학 학습성과 성취도와 중요도 인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2호, pp.203-214, 2013.
- [26] 최지혜, 박미정,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방법론적 트라이앵글레이션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339-349, 2013.
- [27] 오주, “가족관계가 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서 임파워먼트의 중재효과”, 복지행정논총, 제20권, 제1호, pp.127-149, 2010.
- [28] J. Block and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eratenes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2, pp.349-361, 1996.
- [29] 한금선, 박영주, 김근면, 오연재, 진중희, 강현철,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유형, 자기효능감, 감정 조절, 대처방법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제17권, 제1호, pp.28-34, 2008.

저 자 소 개

이 미 현(Mihyon Lee)

정회원



- 198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78년 3월 ~ 현재 :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간호, 만성질환, 간호교육

박 미 숙(Misook Park)

정회원



- 1992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1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97년 9월 ~ 현재 :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피로, 노인약물, 간호교육